

I 임상지표



우울증 외래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'우울증 외래' 적정성평가는 임상적 면접에 의존한 제한적인 우울증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우울증의 포괄적인 평가 기반 진료를 정책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.

우울증 외래 부문은 '적정성 평가' 세부지표별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| 2023년 평가개요 |

- 평가대상 :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(건강보험, 의료급여 및 보훈)
- 대상기간 : 2023년 1월 ~ 2023년 6월
- 종합점수 : 88점
- 평가등급 : 1등급(70점 이상)

0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

> 지표 설명

첫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비율을 말합니다.

0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

> 지표 설명

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 환자 비율을 말합니다.

0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

> 지표 설명

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비율을 말합니다.

0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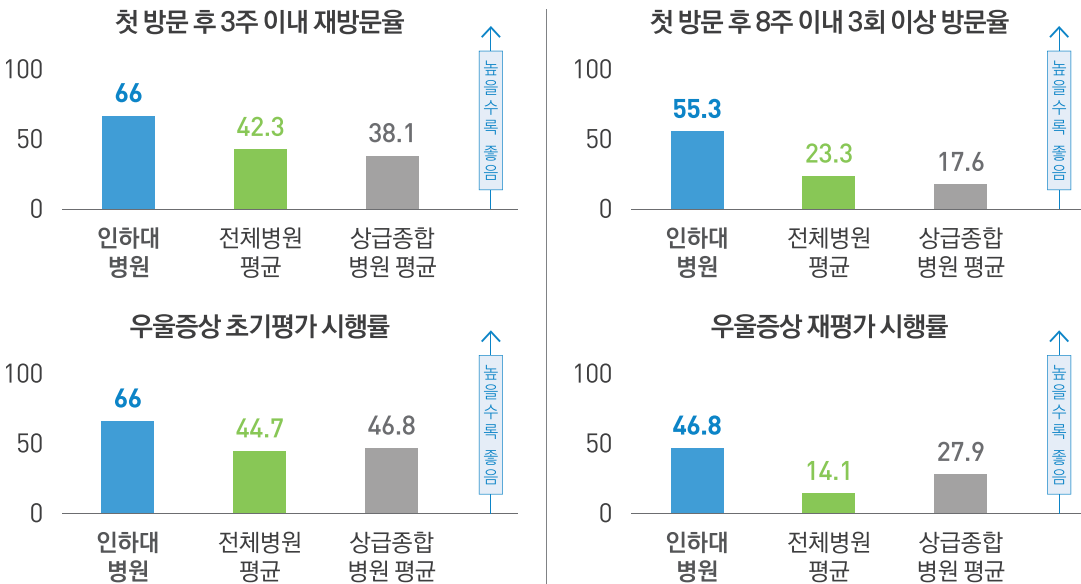
> 지표 설명

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 후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 환자 비율을 말합니다.

> 지표결과

대상기간 : 2023년 1월 ~ 2023년 6월

단위 : %



• 자료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

우울증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정신요법 치료로 나뉘는데, 약물 치료는 초기 단계적 증량 및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효과나 약물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치료는 치료 초기에 빈도를 높일수록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